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기본계획(Ⅰ)*

한 승 회**

구 창 모

- I. 서 론
- II. 수련거리 개발의 기본방향
- III. 수련거리 개발의 영역
- IV. 수련활동 지도 방법론

I. 서 론

1. 연구배경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92년도에 7종 '93년에 14종을 개발한데 이어 '94년도에도 10종의 수련거리를 개발하였으나, 그동안 개발된 수련거리의 내용들이 청소년 전인교육의 체험학습활동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실제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수련거리 개발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축적이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수련거리를 개발하기 시작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라 여겨진다.

바로 이 연구는 그동안 개발된 수련거리의 내용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수행될 수련거리 개발을 위한 방향설정과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수련거리 개발(Ⅰ)과 수련거리 개발(Ⅱ)로 구분하여 (Ⅰ)에서는 수련거리 개발을 위한 영역과 방법론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95년도에 수행될(Ⅱ)에서는 중·장기수련거리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책은 수련거리 개발(Ⅰ)의 보고서로서 수련활동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수련활동 내용체계 및 방법론을 정립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개발된 수련거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 논문은 본 개발원의 1994년도 연구사업인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기본계획(Ⅰ)」을 요약한 것이다.

** 공동연구자는 본 개발원의 한승회(연구실장), 구창모(선임연구원)임.

2. 수련거리의 개념적 의미

수련거리란 일정의 수련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계획과 방법 및 특성을 전반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으로,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포함할 뿐 아니라, 그 단위 및 규모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며, 수련거리 자체가 하나의 내용이며 활동인 동시에, 크게는 사업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융통성있게 사용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 1장 제 3조에서도 수련거리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조작적으로 정의된 수련거리는 크게 다음의 3가지 개념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프로그램의 용어는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란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정책학에서의 프로그램은 사업의 의미를 지닌 세부집행계획으로, 교육학에서는 학교교육에 초점을 두고 사용되는 교육과정 *curriculum* 즉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구조화된 학습기회의 개념으로, 그리고 사회교육 분야에서는 사회교육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단계적인 활동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프로그램은 아주 작은 단위활동의 소집단 프로그램으로 부터 대규모 활동의 성격을 지닌 사업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프로그램은 사회교육적 관점에서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한 단위활동의 개념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다시말해 프로그램이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합의한 목적수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수립해 놓은

활동계획 및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활동에서 프로그램의 목적은 완성도가 높은 우수한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 과정 그 자체가 경험의 장이며, 교육의 기회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전국재, 1993). 따라서 청소년활동에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준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들 개개인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야외학습, 야외여가활동, 야외레크리에이션, 야외교육, 야외수련활동, 야외활동, 등 유사한 용어들이 특별한 구분없이 혼용되고 있음을 자주 보게 된다. 여기서의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활동으로서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중심의 활동이 전제가 된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일상적인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될 때에는 자연과의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야외활동의 의미와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야외교육의 의미로 통용된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인 수련활동은 반드시 자연이나 야외에 국한된 것이 아닌 생활 주변에서도 활동 가능한 통합적이고 전인적 교육의 의미를 지닌 그리고 놀이적 요소도 포함한 포괄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수련거리가 활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뜻은 수련거리 자체의 의미 속에 활동적인 속성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수련거리=수련활동”의 등식의 논리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허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셋째,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수련거리가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말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활동 그 자체의 의미 이외에,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활동계획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광의의 의미에서의 수련거리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전준비단계의 기획과정은 물론 인적·물적 자원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행·개정 문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상하위 개념으로 정책policy, 계획plan, 단위사업project, 활동action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수련활동의 성격 및 특성

1) 집단적 활동

청소년 수련거리가 집단적 활동이라고 가정할 때 그 속에는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목적, 정서적 유대, 지위와 역할, 하위집단, 가치와 규범, 참여 유형, 분위기, 응집력, 지도력, 갈등 등 인간관계의 결과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즉 청소년 수련거리는 오늘날의 과잉보호 속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집단활동의 경험을 통해 좌절감이나 달성감을 느끼고, 시행착오를 겪게 하면서 인간적인 성장을 유도해 준다. 집단활동의 '경험을 통해 학습되는 도덕적 행동의 가치기준은 성숙된 성인으로서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청소년들은 집단활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상, 언어, 행동양식, 태도, 의식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과 방향제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신뢰, 성실, 친근감, 우애, 유쾌함, 희생정신, 용기, 시간약속, 상대방에 대한 존경, 공동체 의식, 최선을 다하는 마음, 희망, 즐거움, 끈기, 인내, 봉사정신 등 역시 집단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결국 집단적 활동의 특성은 두 사람 이상의 집합체로서의 일정한 회원이 있고, 서로가 동일한

집단에 소속하고 있다는 집단 의식이 있으며, 공동 목적이 있고, 이들 목적을 성취함에 상호의존적이며, 의사소통, 인지 그리고 반응 등을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단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남세진, 1992).

2) 자발적 활동

청소년 수련거리가 자발적 활동이라 함은 참여자 개인이 자율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활동을 선택하며, 수련활동 참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개인에게 일임한다는 의미이다. 즉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그에 따른 강요도 없다. 그러나 결정을 하는 과정과 활동의 선택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선택활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수행능력과 시간, 비용, 장비, 공간 등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는다.

수련활동의 자발적 측면에 대한 강조는 자신의 적합성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는데 있으며, 수련활동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만약 활동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개인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활동이라면 그 수련활동은 인위적이고 틀에 박힌 실패한 수련거리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수련활동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시간, 장소, 내용, 방법, 비용 등에 관한 우리나라의 청소년 활동 여건과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3) 체험적 활동

최근 교육계에서나 청소년 분야에서 체험교육 혹은 체험활동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곤 한다. 이는 그동안의 교육이나 청소년 활동이 체험 중심이 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경험과 체험의 구분은 경험이 이미 지성이나, 언어, 습관 등의 구성 요소들에 의해 섞여져 있는

것에 반해, 체험은 이러한 요소가 전혀 근접되지 않은 근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 속에 볼 수 있는 생생한 의식과정이나 내용 즉 특정한 인격이 직접 경험한 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체험활동은 참여자 자신이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만지거나, 활동하여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새롭게 실행해보는 과정인 것이다.

특히 자연체험의 기회가 적은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인위적이고 도시화된 환경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자연환경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좁으로써 보다 넓은 자연세계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갖게 해주는 일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며, 체험활동 속에서 획득한 지식과 기술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4) 탐구적 활동

근래에 이르러 특히 학교의 과학교육에서 결과 중심 교육을 비판하고 과정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탐구’ 혹은 ‘탐구능력의 신장’ 등이 과학교육의 중심 구호로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의 과학적 탐구는 과학자들의 연구활동 내지는 과학적 방법과 관련되거나 연유된 것이고, 어느 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지향하여 모방하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탐구는 우주의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고 조정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의도적 활동을 말한다. 이 활동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 방책을 궁리하며, 자료와 정보를 추구하고 분석하며 판단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이처럼 탐구에 대한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

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데, 이는 탐구 속성 자체의 다양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탐구는 어떤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접근, 해결방법, 문제해결의 전략 등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또는 반성적 사고, 비평적 사고,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발견적 사고등의 동의어로서 사용되기도 하며, 혹은 사고의 방향, 교수의 방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탐구활동이야말로 교육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교과목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요, 어떤 분야의 과학이나 어떤 연구활동에서도 핵심적으로 행하여지는 과정이라 하겠다(서철원 1993).

5) 모험적 활동

수련거리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개인적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함께 나누는 의식을 길러주고, 집단형성을 통해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시켜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수련거리의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의 역할이 수련거리를 통하여 가능한 것은 청소년 수련거리가 모험적 활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험활동이란 일련의 게임 및 도전활동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가르치고 집단의식을 형성시켜주는 활동으로서, 단순하고 잘 알려진 활동에서 시작하여 믿음을 심어주는 활동으로 참가자를 이끌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참가하는 데 위험이 따르며, 반복적 연습활동으로 실천적 이해를 터득할 수 있는 활동중심 접근을 특징으로 하며, 집단이 함께 위험을 극복하는 과정을 즐기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모험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신적 단련을 통해 청소년들을 성숙시키고 감사와 나눔의 마음을 기르며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시키는 일이다.

6) 학습자중심 활동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길러주고, 각자의 능력과 수준 그리고 흥미에 부합한 교육내용을 전달해 주는 데 실패하였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즉 학교교육은 입시준비를 위한 단편적인 지식제공에 치우침에 따라 교육의 기능이 비인간화·도구화되었으며, 또한 교육방법 역시 교사중심의 획일적인 학습방법을 취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은 무시된 채 모두가 영어, 수학에만 매달려야 하는 “영수학생”이 되게 만들었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이러한 학교교육과는 달리,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전망과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수련활동은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지식과 기능 중심에서 인간관계 중심으로, 과제수행 중심에서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문적 활동 중심에서 기초적이고 보완적인 활동 중심으로, 획일성·타율성·수동성·모방성 중심에서 융통성·자율성·능동성·창의성 중심으로 모든 내용을 계획 수행하려는 청소년활동이라 할 수 있다.

4.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요성

1) 즐거움

많은 청소년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권태로움과 단조로움 그리고 불만족에서 부터 벗어나 무언가 새롭고 즐거운 일을 찾고자 수련활동에 참가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은 수련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된 범위내에서,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자극적이고 모험적인 그리고 파괴적이며 의도적인 활동들을 옹고 그림의 판단없이 예

기치 않은 상황과 함께 빠져들기를 원한다. 이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즐거움을 수련거리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형식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활동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 야외교육

교실 속의 실내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야외교육에 대한 강조는 교육적 측면에서 적극 권장할 만한 가치로운 일일 것이다. 야외교육은 교육의 장소를 야외로 옮긴다는 의미 이상의 많은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자연보호교육, 환경교육, 여가교육, 건강교육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경험, 발견, 탐험, 모험, 감각의 자연적 활동, 강한 흥미, 현실성, 행동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야외교육이란 야외의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교육활동에서 자연을 애호 보존하는 것을 배우며, 지적, 정서적, 레크리에이션적인 모든 야외활동에 의해서 창조성과 사회성을 기르고 건강한 심신의 육성을 통해 교육효과를 얻고자 하는 활동이라 하겠다.

이러한 야외교육의 특성을 청소년 수련거리에서 최대한 발휘하고 또한 청소년 수련거리가 야외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장체험의 기회와 창의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둘째, 인간형성을 위한 자기표현이나 자기실현의 장이 되어야 하고 셋째, 청소년문제해결능력 신장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하며 넷째,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의 제공은 물론 탐구적인 자세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전인교육

교육의 본질은 전인교육이어야 하며, 그것이 교육 본래의 자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 교육은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무시된 채 기

형적으로 지식의 불균형 현상이 출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를 위한 보통교육이라기 보다는 소수를 위한 특수교육만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수련거리는 현대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수련거리는 현대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수련활동 과정의 내용이 틀에 박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폭넓은 주제와 다양한 관심거리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의 사고능력이나 창조력, 판단력, 추리력, 신체활동력 등을 최대한으로 동원시킬 수 있을 때 앞으로 전인교육 차원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련활동의 내용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전반적인 지식 체계나 그것의 구성원리보다는 활동 영역별로 청소년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단순한 욕구의 발산에 그치지 않고 평생에 걸쳐 자기발전의 전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인교육적인 차원에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상황적 요소와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심리적 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청소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느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인의 요구와 흥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인교육은 인간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련활동을 통한 인간성 회복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회교육

청소년 수련활동의 사회교육적 의미를 지닌 가치있는 활동임을 사회교육의 정의나 그 교육내용

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사회교육은 학교의 교육, 지역사회교육, 평생교육, 생애교육, 계속교육, 기초교육, 추가교육, 공중교육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련활동에서 추구하는 기본 이념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사회교육이란 인간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학교 외의 교육활동으로서 조직적이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교육의 주 대상은 취학전 아동이나 청소년 및 성인이다. 또한 사회교육의 주요 특성으로 민주성, 다양성, 자율성, 융통성등을 제고하고 실시하는 활동이며, 인간성 향상을 위한 보다 많은 참여를 통해서 풍부하고 의미있는 생을 성취시키는 인간의 노력인 동시에 인격의 조화적 발달과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의 역할수행에 따른 지식과 기능의 전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교육활동이다.

5) 여가적 의미

청소년에게 있어서 여가로서의 수련활동은 이제 단순한 휴식의 의미를 넘어서 청소년 개인생활의 재충전과 창의적 개성의 발휘 및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로워야 하는 여가를 구속, 관리, 조정하는 것이 아닌, 명실공히 청소년 개개인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자유로운 시간(서울시교육연구원, 1984)으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평생을 통해 인격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여가문화의 정착에 청소년 수련거리가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여가활동 참여유형이 TV나 라디오 시청 등의 정적이고 획일적인 활동에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가생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역시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과 병행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련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청소년기를 인정해 주고, 생활의 폭을 넓혀주며, 활동 경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것은 여가적 관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또한 수련과정을 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여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계획적인 여가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가의식을 바로 잡으며, 여가에 대한 조기 교육 및 기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올바른 여가관의 정립과 합리적인 여가생활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6) 놀이성

청소년 수련거리와 관련하여 건전한 놀이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상상의 세계를 제공하며, 인간관계를 형성시키는 원동력의 구실을 한다. 또한 놀이는 성인의 역할을 배워가는 사회화 과정의 기능 이외에 언어체계의 기초 학습과 공동체적 삶의 규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긴장 및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심리적 치료 효과 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놀이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현대사회의 도시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연적 놀이 공간의 상대적인 축소와 성인들의 위락시설 급증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의 증가는 청소년 놀이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청소년 놀이문화를 음성적으로 조장시키기도 한다. 또한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획일주의와 인간을 기계처럼 다루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자연과학적 차원에서 설명해 보려는 과학주의, 실리만을 추구하는 현실주의 등은 청소년의 놀이 정신을 파괴하고 청소년 문화의 기현상을 촉진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되는 청소년 수련거리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청소년들의 욕구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놀이형 수련거리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Ⅱ. 수련거리 개발의 기본방향

1. 개발의 현황

- ① 문화원탐방활동 ② 바들산체험화들 ③ 예술감상활동 ④ 독서교실활동 ⑤ 명절쇠기활동 ⑥ 도시·농촌교환봉사활동 ⑦ 역사연극활동 ⑧ 국토탐사활동 ⑨ 안전사고대비활동 ⑩ 민속놀이교실활동 ⑪ 호연훈련활동 ⑫ 자연농장활동 ⑬ 모의지방의회활동 ⑭ 수상훈련활동 ⑮ 지역사회명사만남활동 ⑯ 노래광장활동 ⑰ 놀이한마당활동 ⑱ 부모와 함께하는 역할놀이 활동 ⑲ 모의법정활동 ⑳ 환경캠프활동 ㉑ 역사인물기행활동 ㉒ 정신건강활동 ㉓ 환경살리기활동 ㉔ 가치관정립활동 ㉕ 바른시민생활활동 ㉖ 지역사회봉사활동 ㉗ 전통문화사랑방 활동

2. 개발의 방향

- 1) 철학에 기초한 개발과정의 수립 및 준수
- 2) 수련활동 영역간의 균형 유지
- 3) 현장 적용도의 제고
- 4) 대상의 특성 고려
- 5) 청소년의 요구와 흥미 반영
- 6) 기타 고려사항
 - (1) 활동시간
 - (2) 안전성

- (3) 지역적 특성
- (4) 융통성과 독창성
- (5) 문화정체성과 문화감수성
- (6) 국제화 및 세계화
- (7) 가족 단위의 수련거리

Ⅲ. 수련거리 개발의 영역

1. 자연체험활동

인간에게 있어 자연은 어느 것 이상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 호흡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며, 또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와 혜택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매우 소중한 삶의 터이자 생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연에게 해서는 안될 행동들을 서슴없이 저질러 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과학 우선주의 및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 등이 그러한 예들로서, 이러한 생태계의 파괴와 오염은 최근 매우 심각한 수준에 까지 이르러 우리 인간의 생명마저 위협을 주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자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 지는 숙제인 것이다. 특히 자연 체험의 기회가 적은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인위적이고 도시화된 환경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자연환경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보다 넓은 자연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해주는 일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청소년들은 동물, 나무, 꽃, 풀, 새, 조개껍질, 물고기, 벌, 물, 모래, 자갈, 바위, 돌 등과의 만남을 통해 새롭고, 흥분되고, 재미나는 일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시도해보고, 물어보고, 배우고, 행하는 다양한 느낌과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며, 자연 속에서 획득한 지식과 기술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결국 자연체험활동은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며, 자연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坂本昇一, 1992). 이러한 자연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의 심리생리적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정신 건강 문제 뿐 아니라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과 창의력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전인교육 측면에서 오늘날의 학교교육이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시킴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연체험활동 참여는 전전 육성 차원에서 적극권장할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스포츠활동

인간은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신체적 활동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의 활동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즉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육의 속도가 빠르며 신체적 활동의 욕구가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때문에 마음껏 뛰고 활동하려는 충동에 예민하여 자기표현이나 자아실현으로서의 활동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신체활동 욕구를 충족시

켜 주는 것은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것이며, 이와 가장 바람직한 활동은 스포츠로 평가되고 있다.

스포츠는 비록 놀이나 게임이 가지는 특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하여도 그것과는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 항상 신체적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스포츠란 현실 생활과 분리된 세계이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규칙에 의해서 통제되고, 기술과 결합된 신체기능 및 기량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경쟁적인 인간의 표현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얻어지는 경험에 대하여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Levy(1952)는 아동기의 경쟁적 스포츠 참가는 사회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Lever(1976)와 Duquin(1977)은 아동기의 스포츠 경험은 대인경쟁, 리더쉽, 집단생활 및 전략적 사고등과 같은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직기능을 학습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스포츠활동은 유희적 및 오락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정서적 휴식이나 창조성을 제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활동에서도 학습되는 경험은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은 어떤 형태이든 스포츠활동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포츠는 페어플레이의 가치와 민주적 과정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집단활동을 통해 스포츠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집단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가 속한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집단의 기본적인 가치관에 관계없이 나는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을 느끼게 된다. 이외에 스포츠활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합법적으로 표출시키는 수

단이므로 스포츠 참여의 기회는 투쟁 본능의 충족을 위한 욕구에 대해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가 된다. Greetz(1972)는 스포츠가 사회학적으로 중요시되는 문화적 가치, 신분체계 및 기타 문화적 제 측면을 조망해 줄수 있는 매체를 제공해 준다고 강조함으로써 스포츠가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사회문화적 가치를 전달해 주는 중요한 사회체제임을 시사하고있다. 결국 스포츠는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일반 성취사회의 지배적 가치이념을 제공하는 문화주의에 기여함으로써 성인기에 성취사회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해소시켜 줄 뿐 아니라 장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훈련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Roberts & Sutton-Smith, 1962).

3. 문화활동

“문화”라는 용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문화의 개념은 크게 두가지 기본적인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는 관념론적인 입장으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가능케 하는 원리나 원칙만을 문화라고 정의하는 관점과 다른 하나는 인간의 생활양식 일체를 문화로 간주하는 총체론적인 입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영역 속에는 일반적으로 문화유산, 문학 및 예술, 대중매체, 사회문화적 활동, 여가활동, 국제문화교류 등이 포함된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여기에서의 문화는 음악, 미술, 문학, 연극 등의 활동과 문화행사 참여와 같은 예술적 의미의 문화활동을 지칭한다.

문화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개인의 특질에 따라 인간의 잠재능력을 개발시키고 창조적 통찰력을 포현하게 함으로써 통합적 인격을 형성할 수 있고, 또한 사회와 자신간의 유기적인 통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임광진, 1993). 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들은 축제, 무용, 음악, 연극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을 통하여 생활의 즐거움이나 기쁨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예술적 성격의 각 분야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적 동일성과 결속력을 강화시켜 주며 창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문화활동은 개인적 정서활동으로 그 세계는 항상 청소년들의 정서형태나 상상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정신과 감정의 산물인 문화활동의 세계는 예술작품과의 다양한 정의적 인지적 활동을 통해서 즉 예술에 관련된 자신의 의미와 작품의 창조성과 미적 추구과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문화활동을 가능케 하는 각종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안목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음악을 듣게 하며, 책이나 미술작품을 볼 수 있게 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인식시켜 주는 것은 물론, 미를 관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 스스로 아름다움에 대한 형태와 모습을 발견하게 하며, 자신의 미적 안목을 생생해 나가게 하는 모든 활동은 문화와 예술의 세계로 이끌어 가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문화영역에서의 청소년 참여의 대중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청소년들은 그들의 참여 수준 이상의 활동을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은 청소년 육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따라서 외래문화의 과도한 도입으로 부터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정책성의 확립과 청소년의 이상을 실현하고 창의력 개발을 위한 다원적 문화의 모색, 그리고 청소년의 문화에

술에 대한 잠재적 능력 발현을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적 감수성과 창조역량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4. 봉사활동

최근에 이르러서는 현대사회의 복잡 다양한 사회문제를 정부적 차원에서만 해결하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시민의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에 바탕을 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자율적 봉사정신의 제고는 산업사회의 건설에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조휘일, 1988).

봉사활동은 경제적인 보상없이 그리고 자기희생을 전제로 개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청소년활동으로서의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식, 사회참여의 기회, 개인의 능력발휘, 목표성취에 따른 긍지와 보람 등 많은 것을 갖게 해주는 매우 가치로운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봉사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봉사활동 대상의 욕구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봉사활동의 장소는 시설인가 재가인가, 재가보호라면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중에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가 사전에 조사되어야 한다. 또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모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봉사활동을 조직 운영하는 단체는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봉사자의 모집에서 시작하여 면접, 교육, 활동소개, 봉사활동, 평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봉사활동의 사회적 의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송광성 외, 1992). 첫

째, 현대사회에서는 복지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한정된 재정과 인력으로는 모든 기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은 이러한 복지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의 자발성에서 우리나라는 민간활동이고 또한 활동의 과정을 통해서 공동사회 의식을 높이는 것이므로 사회 복지를 향한 시민참여의 한 형태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셋째, 여가의 건전한 이용방법이 사회문제 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어느 계층이든 개인의 발전 뿐 아니라, 사회복지에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매우 가치있는 여가 활동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5. 예절활동

예절이란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오랜 생활습관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생활방법으로 정립되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계약적인 생활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득중 외 1991). 이러한 정의에서 보듯이 예절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현대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자기관리와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관습이나,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만은 아니며, 현재를 이루게 한 원동력인 동시에 미래를 창조하고 계획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문화적 자원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예절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의 심각성은 적지 않게 빈번히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습관의 붕괴와 관련하여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고 불손하다거나, 전통적인 예법이나 관습을 지키지 않고 편의주의에 따라서 산다거나, 사회적 조직에서 기강이 무너지고 순종하는 심성을 소유하지 못하였거나 하는 등

전통적 인간관계의 질서가 경시되고 있다는 지적을 여기 저기서 찾아 볼 수 있다(이돈희, 1992). 그렇다고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것인 전통적인 습관이나 예절을 무시한 채, 무비판적으로 서구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거나 기성세대와 자주 갈등을 빚는 원인과 책임을 전적으로 청소년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는 그동안의 학교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도덕이나 예절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적 유산들을 교육 목적에 맞게 개발하고 재구성하여 학습의 경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은 게을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에서도 예절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예절의 방법 및 유형이나 예절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로서는 마땅히 도덕이나 예절교육을 받을 만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만을 갖고 청소년들을 탓하기 이전에 과정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또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예절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전통예절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보다는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 만들어진 생활규범들을 정리 검토하고, 전통적인 예절규범들을 변화된 시대상황에 알맞게 재해석하여 공동생활의 원칙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이를 기초로 새로운 예절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성원으로서는 갖추어야 할 공동생활의 원리를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전통문화활동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주체성과 관련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 민족적 자긍심 등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서 사회 각 분야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교육, 역사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스스로도 다양한 청소년활동 유형중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지배하는 획일주의, 무분별하게 수용되어지는 외국 문화의 범람, 청소년의 모든 문제를 통계적 차원에서 설명해 보려는 과학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실주의 등 복합적인 현대사회의 속성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우리의 문화영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의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문화에 대한 재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한 민족의 삶의 질을 판단하고 국가의 저력을 반영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 사회의 국제화에 따른 외래문화의 다량 유입과 매스미디어의 확산으로 문화정보를 대량화, 가속화가 이루어져 우리의 문화풍토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특히 1990년도의 문화부 신설은 과거 한국문화의 낙후성을 회복하고 2000년대의 문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참여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매우 의의

있는 문화사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문화발전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전통문화를 토대로 하여 이를 계승·발전·심화하는 데 달려있고, 그 나라 문화의 정수는 민족예술 속에서 발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통은 지난 세대에 이미 이루어져 그 후로 계통을 이루어 전하는 것이며, 또한 문화는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의 성과를 지칭하며, 보다 고차원적인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생활의 우아함과 예술적인 삶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한 인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 철학, 종교, 예술, 과학 등의 총체를 지칭하는 것이다(김기수, 1993). 따라서 전통문화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에 의해 독창적으로 형성되어 창조 전승되어온 고유의 민족문화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문화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조상의 얼을 기리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시켜 주체성의 확립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시켜 줄 뿐 아니라, 다양각색의 외국문화를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시켜 줄 것이다.

7. 인간관계수련활동

인간관계라 함은 광의로는 대인관계이고 협의로는 인간에 관련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화합을 원만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말해 다른 사람과의 더욱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인간관계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이고, 보다 적극적인 정의는 일정한 집단내에서 진실한 휴머니즘에 기초를 두고 집단의 협동관계를 구축

하는 방법, 기술,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데 이는 사회전역에서 특정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협동과 능률 향상을 위해 생산 및 작업상의 만족 등 근본 목적을 여하히 해결하며, 목표 지향적인 협동체제를 어떻게 확립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목적 때문에 중요시 되고 있다(임갑빈, 1992).

한편 인간관계수련활동은 감수성훈련활동이나 훈련집단활동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대인관계의 개선 뿐 아니라 개인의 집단적응에 관련된 문제까지를 포함한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간관계수련활동의 목적은 구성원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생활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인간관계수련활동에 참여하여 얻는 효과로는 첫째, 다른 사람도 자기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동료의식 둘째, 자신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집단 구성원이 자기를 받아주고 이해한다는 안도감 셋째, 자신도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포용감 넷째, 자신도 타인을 도울 수 있으며 집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헌감 등을 들 수 있다. 인간관계수련이 가지는 장점은 짧은 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도자는 물론 구성원들이 여러 관점에서 개인의 장점과 단점, 당면한 문제 등을 지적해 주기 때문에 개인은 자기에 대한 통찰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 인간관계수련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여금 대인관계를 시험해 볼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게 해준다(이정근, 1992).

8. 자아개발활동

자아개발활동이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주체성 및 사회성의 개발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확립을 목적으로 심성개발, 인간관계개선, 가치관정립,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심리적 적응을 위해 정서적 불안정과 함께 독특한 문화적 행동 특성을 보여주는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성숙 및 발달이 요구되는 청소년기에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은 대학입시 교육상황과 교육환경의 열악이라는 교육의 부적합성때문에 학업성취의 문제외에도 자아정체감 및 자아성숙 그리고 도덕성 발달의 지체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문용린, 1989). 즉 오늘의 학교교육은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교육내용도 청소년 개개인의 적성 및 진로의 발견과는 별 상관없이 진행되기도 한다. 특히 입시경쟁의 교육풍토 속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학생청소년들, 제한된 교육기회와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근로청소년들, 가장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소년소녀들에게 자신을 위한 자아개발 참여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더우기 청소년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 및 감정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은 공부로 일관되는 강박관념에 억눌려 정서적 미숙아, 잠재적 정신질환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나는 누구이며, 전체사회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한 인식을 확립시켜

주는 일이다. 물론 정체감의 발달은 전생애에 걸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성숙하게 됨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인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성인으로 독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알맞은 사회적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진로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겪어 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자아개발활동은 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9. 과학활동

청소년교육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교육보다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정보의 팽창으로 오늘날의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1세기의 미래사회는 국제화, 다양화, 정보화 사회로 특징지워지는 과학기술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문제나 상황은 단순한 기존의 지식이나 고정된 가치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처리, 창조적인 사고에 의한 문제해결력과 의사결정능력 그리고 과학적인 탐구능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즉 사회 자연적 현상과 도덕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면 사회 및 자연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관찰, 탐구, 판단 등의 과학적 능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서철원,

1993).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과학수업은 탐구능력이나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실험보다는 강의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년에 몇 번 실시하는 실험마저도 창의력 개발을 위한 발견실험보다는 단순 확인실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학의 내용수준이 높아 학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아 강의식으로 내용을 지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탐구학습이란 생각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학습자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이나 시험이 끝나면 완전히 학습자에게 잊어져 의미가 없는 과학학습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주훈, 1992).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과학활동은 다음의 몇 가지가 고려된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활동내용이 추상적인 것보다는 청소년들의 흥미를 자극시킬 수 있는 그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것이 효과적이며 둘째,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청소년 중심의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고 셋째, 실내에서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강의 전달식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가 중심이 된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넷째, 지나친 전문성을 강조하여 소수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기 보다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고, 끝으로 아무리 과학위주의 활동이지만 프로그램 저변에는 인간중심의 철학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이러한 과학활동의 유형에는 실험 및 실습활동, 관찰 및 탐사활동, 견학활동, 과학공작활동 등이 있다.

10. 캠프활동

캠프활동은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활동인 동시에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 활동으로 야영활동이라고도 칭한다. 최근에 캠프활동은 청소년층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을 중심으로 널리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도시를 벗어나 자연환경 속에서 새로운 경험과 기분전환을 가능케 한다는 삶의 재충전 측면에서 매우 인기있는 활동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캠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의의와 사회적 의미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체험의 기회 및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울뿐 아니라, 순수한 인간성 회복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협동심, 우애심, 인간관계개선 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개인의 건강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넷째, 캠프활동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해결능력, 사회적응력, 창의력, 새로운 기능과 지식 등 현대사회의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다.

한편 캠프의 유형은 활동내용 및 목적에 따라 교육캠프, 훈련캠프, 봉사캠프, 레크리에이션캠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서는 당일캠프, 1박캠프, 단기캠프, 장기캠프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인원과 규모에 따라서는 단독캠프, 소집단캠프, 합동캠프, 전국캠프, 국제캠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상에 따라서는 어린이캠프, 청소년 캠프, 가족캠프, 장애인캠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IV. 수련활동의 지도방법론

1. 실천적 맥락과 수련활동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을 문제의 시각에서 그 증상을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소위 원인 cause→결과 effect의 환원주의적 접근으로 일관해 왔다. 물론 원인→결과와 패러다임을 적용할 경우 그 패러다임에 내재된 오류가 명백히 드러남을 볼 수 있다.

검은색 안경을 쓰면 온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과 같이 청소년에 대한 이와 같은 정형화된 시각은 청소년의 삶을 왜곡시킨다. 이 패러다임으로 현상을 들여다보면, 현상을 파악하려는 주체 subject와 파악되는 대상인 객체 object간의 엄격한 상호분리를 전제로 인식의 과정이 시작된다. 예컨대, 청소년문제를 인식할 경우에 어른이 주체가 되고 아이들은 탐구의 객체로 분리되어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에게서 찾게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청소년문제는 본질적으로 원인→결과와 정형화된 시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수련활동의 기본가정을 갖는다. 청소년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천과 정책지향적이어서 이론적 논의를 중시하는 원인→결과와 접근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말 청소년문제는 학자(이론가)들의 전문적 논의로 해결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이해당사자(청소년, 어른, 사회)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 조정이 요구되는 정책지향인 동시에 실제적인 장면에서 행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천지향의 문제이다.

2. 수련활동과 지도자

수련활동에서 수련활동 지도자와 청소년이 어떠한 모습으로 만남과 관계를 이루는가 하는 것은 수련활동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과 지도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들에 의해 지도자의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수련활동 지도자는 지도감독은 커녕 개입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수련활동 지도자는 청소년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아울러 선배로서의 권위와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수련활동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서든 자신의 주장이 청소년들보다 앞서서는 안된다. 테니스 코우치가 자기가 지도하는 선수가 실패했다고 하여 그를 대신하여 코트에 나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합은 선수가 하는 것이다. 수련활동 지도자는 테니스 선수가 시합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훈련을 시키는 코우치이듯이 수련활동 지도자는 2선에 서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3. 수련활동의 지도기법

흔히 수련활동을 지도하는데에는 실습, 답사, 견학이나 봉사활동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험적 방법으로부터 강연이나 강좌 또는 토론과 같은 추상적이고 전달적인 방법까지 다양한 지도기법이 사용된다.

수련활동지도를 위해서 전성연(1983)이 제시한 청소년 교육기법의 분류모형 「그림」은 지도하는 활동의 목적과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

을 활용할 것을 제안해 준다.

이 모형에 의하면, 「전달-수용적 방법」은 흔히 지적인 학습을 요하는 경우나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보다 많이 강조되는 「참여-탐구의 방법」은 상호작용의 역동적 맥락이 중시되며 「전달-수용적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정의적인 특징을 갖는 「수련-체득적 방법」은 일종의 생활훈련식 방법으로 집단활동을 통해서 인간관계 기술, 리더쉽과 멤버쉽, 가치와 창조의 순종, 자치능력의 함양 등 사회적 정의적 능력확대에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 모형의 사용은 한가지 기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방법을 상황에 적합하게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4. 결

수련활동 지도자는 이 방법들을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청소년 문제는 원인→결과의 환원주의적 시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정형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인간(청소년)은 목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을 구상하고 문화를 만들며, 가치를 가지며, 인간의 행위는 여러가지 계획, 가치, 목적들에 의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로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행동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대상들과 구분이 된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특징은 인간을 부분의 합으로서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인 전체로 이해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원인→결과가 패러다임의 유용성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패러다임이 청소년 문제에 적용될 경우, 이 패러다임에 함축된 오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됨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청소년 문제는 실천의 맥락에서만 해결 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실천적 인식을 수련활동의 지도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실천의 사태는 이론적인 삶의 세계와는 달리 불확실 *uncertainty*, 불안정 *unstability* 특이한 *uniqueness* 가치의 갈등 *values conflict*의 특징을 보이는 지극히 불확실한 장면이다. 어떤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에서 즉시 대처해야 하는 일상의 삶의 사태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대처하는데 이론적인 논의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 전문가들이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마치 테니스 선수가 자기 코트에 공이 넘어왔을 때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공식에 대입하듯이) 공을 쳐내기 보내기 보다는 우선 넘겨보내고 나중에 따져보는 것과 같은 상황 지향적인 지극히 불확실한 장면이다.

흔히 실천의 장면에서 우리의 인식은 말이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천 속에서의 앎은 행위자가 보여주는 순간순간의 판단이나 결정 그리고 행위속에 스며있기 때문이다. 골프선수의 정확한 「샷」이나, 야구경기에서 상황에 유능하게 대처하는 투수의 투구행위나, 이차방정식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중학생의 판단행동 등에서 실천적인 앎의 모습이 나타난다. 실천의 장면속에서 갖든 이런 무언의 앎의 과정은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그 행위자들의 의의기으로 분석되지 않는다. 말과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이런 앎의 형태는 당연히 이론적사태와는 전혀 다른 논리를 갖는다.

실천의 사태에서는 행위자는 누구나 순간순간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실천적 앎을 보여준다. 행위자들이 보여주는 실천의 앎은 그들이 절차와

규칙을 설명할 수도 없고 명확한 기준도 댈 수 없는 해위를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현재 행위자체에 대해 끊임없는 사고를 한다.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이런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불박한 이해의 틀(관점이나 지식)을 검토하기도, 재구성하기도 또는 버리기도 하면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한다. 실천에서의 이러한 반추행위는 기예 *art*가 이루어지는 핵심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와같은 행위 속의 반추를 통해 행위자는 불확실한 실천적 상화에 대처한다. 이런 형태의 앎을 「무언의 앎」 *tacit knowledge*이라 부르는 폴라니(M. Polany, 1967)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을 때, 수천명의 사람들 속에서 그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의 얼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의 얼굴의 분위기나 느낌을 통해 그를 인지해 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어떤 도구의 사용방법을 배울 때, 도구를 통해 전해오는 대상물체에 대한 접촉감을 통해 어떤 기능과 감(각)의 획득에 필수적인 것들이 무언의 앎으로 내면화 된다고 설명한다.

이론적 앎과 대비되는 이러한 실천적 앎은 행위속의 사고 *reflection-in-action*의 특징을 보인다. 즉, 어떤 행위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그 행위 자체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련한 투수는 시합중에 자신의 투구행위를 끊임없이 반추 한다. 그는 타자의 행도, 심리상태, 상대팀의 작전 등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며 또 자신의 힘을 비축하면서 상황판단에 따라 자신의 결정구를 구사하는데 이런 것이 실천적 앎의 모습이며 바로 이런 점에서 노련한 투수와 평범한 투수와의 차이가 있다. 동료들과 함께 연주하는 보컬그룹의 연주자들은 그들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을 반추함으로써 음감을 변화시키거나 결합 또는 재결합

함으로써 조화를 이루어 낸다. 이는 투수가 공을 느끼는 것처럼 그들은 음악을 느낀다. 이런 과정에서 행위자들은 행위자체, 행위결과, 또는 그 행위속에 붙박힌 직관적인 삶에 상호작용적으로 탐색·대처한다.

실천의 사태에서 우리는 일상적인 기대를 벗어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며 행위를 통해 반추하는데 이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이해의 틀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이해를 시험·검증함으로써 상황에 적절히 대처한다. 행위속의 반추에서 우리는 기존의 이론이나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상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 이론과 기술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존의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즉, 우리는 실천의 문제상항에 대처하기 위해 목표와 수단을 분리하지 않고, 연구와 적용을 분리하지 않으며 사고와 행위를 분

리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상황과의 끊임없는 상호교섭 즉 상황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자신에 맞게 조정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상황의 한 부분으로 자신을 몰입하기도 함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실천의 인식론이 원인→결과의 정형화된 시작과 다른 점이다.

실천지향의 청소년 문제는 사실facts을 발견해 내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meaning를 만들어 내는 예술적 행위의 삶이라는 표현이 보당 적절하다. 의미는 상황지향이며 상황은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바로 청소년 문제는 어른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해해야 한다. 수련활동속의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들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창모. 1992. “청소년 여가의 활성화 방안”, 체육청소년부.
- 구창모. 1993. “청소년의 수련활동 활성화 방안”, 문화체육부.
- 권이중. 1990. 「사회교육개론」, 교육과학자.
- 김기수. 1993. 전통문화활동,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득중. 외 1993. “우리의 전통예절”, 문화재보호협회.
- 김성수, 권일남. 1994.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정명. 1989. “체육학과 과학주의”,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제23호, 6-9.
- 김정명 외 1991. “청소년활동동기 부여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 김주훈. 1992. “과학과의 개정방향”, 교육개발 제14권 제3호, 한국교육개발원.
- 남세진. 1992. 「집단지도방법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남정걸, 권이중. 1988. 「사회교육 및 청소년프로그램」, 교육과학자.
- 문용린. 1989.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적합성”, 한국청소년의 오늘과 내일, 한국청소년연구원.
- 박명윤. 외 1991. “청소년 수련거리 실태조사 및 개발방향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서울시교육연구원. 1984. 「여가교육」, 서울시교육연구원.

- 서철원. 1993. 탐구활동,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손봉호. 강영안역. 1985. 「몸, 영혼, 정신」, 서울 : 서광사.
- 송광성 외. 1992. “도시농촌교원봉사활동”, 한국청소년연구원.
- 양진방. 1989. “무도에 함장된 체육관(體育觀)”, 미발표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세미나.
- 이건철. 1993. “신라 화랑의 체육활동에 관한 고찰”, 선무학술론집, 제3집, 국제선무학회, 245-255
- 이돈희. 1980. “사회교육연구”, 한국사회교육협의회, 제5권.
- 이돈희. 1992. “도덕교육의 제 과제”, 바른교육세미나 발표 논문.
- 이석제. 1990. 「사회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 이용교. 1993. 봉사활동,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용교. 1993. 예절활동,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원구. 1993. 「인간화 교육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교학사.
- 이정근. 1992. 인간관계 수련의 기초, 「인간관계수련활동」, 한국청소년연구원.
- 임갑빈. 1992. 「인간관계론」, 동문사.
- 임광진. 1993. 문화활동,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장동현. 1993. “현장중심의 프로그램 계획모형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제14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국재. 1993. 청소년활동의 관리와 운영,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성민. 1993. 인간관계수련활동,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태일. 이원구. 1984. 「인간관계 교육프로그램」, 보진재.
- 조용하. 1988. 「야외교육활동론」, 교육과학사.
- 조용하. 1990. 「청소년교육의 동향」, 서울 : 교육과학사.
- 조용하. 1993. “청소년 야외수련활동의 현상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1-1 : 149-166.
- 조희일. 1988. “자원봉사활동의 이념과 전망”, 제25회 청소년지도자연수자료집,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체육청소년부. 1992. 청소년 여러분을 위하여 할 거리와 갈 곳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부. 1993. 청소년기본법령집.
- 한국교육개발원. 1987. 제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개정시안 연구개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4. “청소년 문화광장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지역별 문화역량 조사연구”, 신구전문대학 민속문화연구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문화예술토예자료집”,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한국사회교육협의회. 1977. 「평생교육과 사회교육방법」, 한국사회교육협의회.
- 한승희외. 1992. “독서교실활동”,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준상. 1994. “X세대와 청소년”, 국제화와 지방화에 따른 청소년문제,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 함종류. 1990. 「인간형성을 위한 특별활동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현종오. 1990. 「살아있는 과학」, 청년사.
- 황창순. 1993. “청소년의 사회심리”, 2급 청소년지도사과정 연수교재, 한국청소년개발원.

- 日本野外教育研究会. 1989. 野外活動テキスト, 東京: 杏林書院.
- 全村鐘次郎. 1992. 体験学習を創る, 東京: 東洋館出版.
- 坂本昇一. 1992. 自然体験活動, 東京: ぎょうせい.
- Becker, Howard S. 1971. *Sociological Work*. London: Allen Lane.
- Blumer, Herbert. 1969. *Symbolic Interactionism*.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Caillios, R. 1961. "Man, Play, and Games", Translated by Meyer Barash, New York: The Free Press.
- Canic, M. T. 1986. "An Eastern approach to motor skill acquisition", in *Mind and Body* edited by S. Kleinman, Champaign, Illinois: Human Kinetics.
- Chenery, Mary Faeth. 1991. "I am Somebody: The Messages and Methods of Organized Camping for Youth Development". Research Report supported by The Lilly Endowment, Inc. Indianapolis, Indiana, U. S. A.
- Cooley, Charles H. 1964.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hocken.
- Duquin, M. 1977. "Differential sexrole socialization toward amplitude appropriation", *Research Quarterly*, 48.
- Durkheim, Emile. 1964.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 Erickson, Erik.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and Company.
- Ford, Phyllis M. 1981. "Principles and Practices of Outdoor"/ *Environmental Education*, N. Y.: John Wiley & Sons.
- Goffman, Erving. 1971.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Penguin Books.
- Greetz, C. 1972. *Deep Play: Notes on the Balinese Cockfight*, Deadelus.
- Hammerman, D. R. et. al. 1985. *Teaching in the Outdoors*, Danville, IL.: The Interstate Printers and Pub.
- Hanna, T. 1986. "Physical education as somatic education: a scenario of the future", in *Mind and Body* edited by S. Kleinman, Champaign, Illinois: Human Kinetics.
- Harrington, M. 1985. "The politics at God's funeral: the spiritual crisis of Western civilization", New York: Penguin Books.
- Herrigel, E. 1971. "Zen and the art of archery", New York: Random House.
- Lever, J. 1976. "Sex differences in the games children play", *Social Problems*, 23.
- Levy, M. J. 1952. "The Structure of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slow, A. 1968. "Music education and peak experience", *Music education journal*, LIV, 72-75-163-171.
- McIntosh, P. G. 1976. "Theories of How and Why", in *Sport in the Sociocultural Process*, 2nd Ed, edited by Marie Hart,

- Dubuque, Iowa : Wm. C. Brown Co, Publishers.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berts, J., and Sutton-Smith, B. 1962. "Child training and game involvement", *Ethnology*, (1).
- Woods, Peter. 1979. *The Divided School*.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